

금 훈

말 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홍 성 조 선생님

흔히-상투적인 말이지만-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처음 고3 생활이 시작되던 날, 담임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3학년 1반이라는 공동의 운명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이런 선생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이 정한 바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악전고투 하였던가!

열심히 임하자는 의지앞에 몇 번이고 쓰라린 패배를 맛보기도 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채찍질 하면서,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 멀다고나 할까요?

가다가 피곤하고 지칠때면, 우리들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고 힘쓰시

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마음속의 다짐을 다시금 새로이 굳히곤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뒤엔 밝은미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럽고 힘든일은 현재에 있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더우기 그 역경속에서 피어난 우리들의 우정과 사랑은 더한 빛을 발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동안 정다왔던 친구들과 선생님 정들었던 교정, 이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하는 졸업생이 된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사실일 뿐,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선 때로는 즐겁기도 슬프기도 했던 많은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 문일여고를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1. 박은영 :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사수는 부모님 동의, 오수는 남편 동의
2. 김순재 : 최선을 다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드세요.
3. 이정아 : 이런 후배가 되게 하소서. 똑부러지는 개성을 지니게,
4. 양은숙 : 뭐가 이루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사랑하라,
5. 최남숙 : 후배들이여 개망신 당하지 말고 은밀히 잘 봐.(T.V)
6. 김선애 :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백견이 불여일행이니라
7. 조미현 : 생각하는 만능인이 되자.
8. 성실아 : 할 말이 없는데 어찌란 말이야...
9. 김남숙 : 누구 졸업해?
10. 김덕란 : 야! 어떻게 3년을 한마디로 줄이나!
11. 남성애 : 만수별판에서 떠 오르는 해나 봄시다.
12. 이선정 : 열떨결에 왔다가 열떨결에 간다. 열심히 공부해.
13. 김미경 : 고등학교 생활이여 영원히 안녕...
14. 임수영 : 나도 할 말은 있다. 그런데 한마디만 쓰래.
15. 김정화 : 열심히 해 보라는 것, 이 말 한마디 하고 싶다.
17. 조희숙 : 시간 시간마다 자신에게 충실한 문일 여학생이 되시길...
18. 이지현 : ??? !!! !?? !!? 볼 눈이 있는 자는 알아 들어라.
19. 손정희 : 자다 보니 2학년이 되고 놀다 보니 3학년이 되고 심각한 품 잡고 벤치에 앉아 있다 보니 졸업하라고...
20. 김은숙 : 좀 더 적극적이었던들...
21. 서승욱 :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최선의 노력입니다.
22. 맹선희 : 모든 것을 열심히 하세요.
23. 이윤경 : 지금 행복하다고 미래에 행복한 것은 아니다.
24. 송연미 : 고등학교 생활을 후회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25. 이순자 : 문일에서 하는 공부가 괴롭더라도 웃음을 꺾는 불쌍한 학생은 되지 말아라.
26. 김소연 : 애들아! 1년동안 무사히 잘 보내려면 선생님에 대한 아부가 필요!
27. 이유경 : 흑시나 기웃거리 봐야 말짱 헛된 꿈! 역시나 하고 책들여다 봐야 할걸.
28. 한수경 : 나의 교교 시절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게 나의 너리에 꼭꼭 묻어 둔다.
29. 고영희 : 공부, 잠, 운동, 예술, 교양...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30. 강화정 : 아픈 매도 사랑이고 惡교척도 교척이다.
31. 이미자 :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발판을 만들기 바랍니다.
32. 전남미 :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 잃지 말자!
33. 손영은 :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34. 방주미 : 오늘의 해는 내일에 없다.
35. 김난숙 : 아! 시원해.
36. 최은영 : 밝고 명랑하고 알찬 고교 시절을...
37. 송숙현 : 인간들이여! 고독하라.
38. 강선미 : 데미안을 사랑하듯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39. 고현정 : ?!
40. 정민경 : 모든 면에서 자신감과 겸손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41. 조현화 : 여물 단지와 꿀 단지의 엄청난 차이를 인식하라.
42. 노소미 : 후배들이여, 문일을 빛내다오.
43. 이인희 : 노력해서 후회 없도록 하라.
44. 이화숙 : 문일 여고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45. 이경화 : 너는 너다. 다른 학교 학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46. 라경숙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47. 김옥분 :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서로 도와 주며 의종게 지내자.
48. 이진영 : 3학년이 되어서 늘어난 거라곤 엉덩이 평수랑 눈 굴리기 실력밖에 없다.
49. 백혜경 : 한마디만 하라구?
50. 임희남 : 순간의 컨닝이 대학을 좌우한다.
51. 양혜진 : 하루는 길었지만 3년은 짧았노라!
52. 박진숙 : 모든 일을 행함에 문일인의 자존심을 지켜 달라.
53. 김형숙 : 왔다가 그냥 간다. 문일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라.
54. 한정은 :
55. 박혜영 : 모든지 열심히 해라. 청춘사업도 공부도 후회 안한다.
56. 유정연 : 공고-나 졸업한다.
57. 전상희 :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